

が二回持たれ、今回最多の参加者を反映して様々な報告がなされた。

二日目の夜はKKRホテル大阪にて総会主催の九十周年記念レセプションが開催され、総会の参席者と共に歴史のひとつを祝した。

二度にわたる全体会議では聖潔教総務・최희복牧師、連盟国際部長・黃祝天牧師、総会総務・姜栄一牧師らが司会を務め、意義深い討論の末、合意決議文が作成、採択された。

最後に閉会礼拝では예會長・홍준호牧師の司会（統合・홍준호牧師の司会で、예長（大神）総會長・이경운牧師による説教、前總會長・楊炯春牧師による祝祷の後、参加者全員で「우리의 소원」を合唱し、統一された祖国での再会を約束して会議の幕を下ろした。

東京総会神学校が 第3回入学開校式

尹宗銀牧師が 校長辞任、金君植牧師代行키로

第三回東京総会神学校入学式・開校式이 두명의 新入生을 맞이하며 지난 九月七日(月)午前十一時에 東京教会에서 新入生、在學生、來賓 約三十名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朴憲郁教授의 司會로 進行된 一部 禮拜에서 洪性完牧師(大宮教会)의 祈禱와 吳大植牧師(한사랑教会)의 「베세메스로 가는 소」란 說教, 尹宗銀前校長代行的 敎授, 講師, 新入生紹介와 姜榮一總會總務의 勸勉과 慶惠重牧師(總會長)의 祝禱의 禮拜를 마쳤다.

이어서 다같이 記念撮影을 하고, 第二部 祝賀會에는 權寧國敎務主任의 司會로 學校에서 準備한 도시락을 함께 나누면서 金君植校長代行的 歡迎辭와 新入生들의 入學所感 등을 들었다. 특히, 九十八學年度부터는 그동안의 커리큘럼에 본總會神學校에서만 다룰 수 있는 「總會神學」科



目을 新設하여 (總會神學校)이다.

理事會에서는 또한 그동안 定年을 맞아 이미 辭表를 提出하고 校長代行을 해 오던 尹宗銀牧師의 辭表를 受理하고 다음 校長이 決定될 때까지 金君植理事長에게 校長代行 職務를 兼職하게 되었다.

四日市教会 移轉開所禮拜

桑名에서 移轉, 康興富牧師가 赴任

四日市教会 移轉禮拜와 康興富牧師 赴任式이 지난 十月十一日午後四時 中部地方會 각 교회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스럽게 거행되었다.

移轉禮拜는 地方會書記 襄明德牧師(岡崎教会)의 사회 아래 李光世長老(名古屋教会)의 기도와 地方會會長 金桂吳牧師(名古屋南教会)의 「선교목표를 향하여」라는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후 地方會會長의 移轉 선언이 있었다. 四日市教会는 桑名教会가 地方會의 決議에 의해 명칭변경하여 四日市市에 이전하게 된 교회이다.

移轉禮拜에 이어 康興富牧師의 赴任式이 있었다. 地方會會長 金桂吳牧師의 사식으로 서약과 선포가 있었고, 委任받은 목사에게 朴茂樹牧師(浜松教会)의 축설립했으며, 선교사훈

권면과 교우들에게 金鍾吉牧師(岐阜教会)의 권면이 있었고, 黃義生牧師(名古屋教会)의 축사가 있었다. 委任받은 신임목사는 인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로운 선교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했다.

康興富牧師는 一九五三年一月, 제주도 성산에서 출생했으며, 一九八九年長老會 總會神學校 졸업, 一九九五年 大韓大學 神學大學院을 졸업했으며, 一九八九年 六月 전도사인 하, 一九九五年 十月 강도사인 하, 그리고 一九九六年 十月 대한예수교장로회(大神)總會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一九九五年四月 大韓예수교장로회 양문교회를 개척 설립했으며, 선교사훈

大阪教会가 全教人聖經學校

「教会와 宣敎歷史」를 主題로 開催

今年에 第六次年을 맞이하는 大阪教会 全教人夏期聖經學校가 七月十三日(月)十五(水)까지 「教会와 宣敎歷史」를 主題로 四十五名이 聖書的인 敎會觀과 宣敎歷史를 工夫하였다. 특히 今年는 總會의 宣敎九十周年의 해로서 意味를 찾아보는契機가 되었다.

第一講座는 「使徒行傳과 敎會觀」으로 盧政一牧師가 講義하여 使徒와 敎會의 使命을 確認하게 되고, 오늘의 敎會가 宣敎공동체로 이어가기를 다짐하였다.

第二講座는 「韓國敎會와 宣敎歷史」를 景敎의 歷史와 日本을 통한 宣敎接觸이 韓國의 公式宣敎가 이

런을 받은 후 一九九七年 大神總會 宣敎九十周年을 契機로 宣敎九十周年을 맞이하고 있다. 宣敎九十周年을 맞이하고 있다. 宣敎九十周年을 맞이하고 있다.

루어진 事實은 在日敎會와 本國敎會와의 宣敎的 生命關係임을 確認하며 意味를 찾아 보았다.

第三講座는 「在日大韓基督敎會와 宣敎九十周年」을 李淸一牧師가 講義하였다. 民族과 함께, 在日韓國人과 함께 九十年歷史를 形成해 온 少數者의 敎會, 多様性있는 敎會, 世界敎會와 함께 宣敎歷史를 形成해 왔고, 形成해 가야 할 것을 提示하였다.

第四講座는 「關西地域의 宣敎歷史와 大阪敎會」를 一九一六年, 一九三六年的

「美しさを競い つつ 讚美を」

大阪教会でことばと讚美のフェスティバル

多々ある反省も含めて、ティバルになるよう努力しさらに素晴らしいフェスティバル。

(報告 河礼子)



基督教新聞の記事を中心하여 찾아 보았다.

今年는 總會와 九十周年의 宣敎歷史를 回顧하며 福音을 確認한 工夫였다.



私たちは在日大韓基督敎會は宣敎九十周年を迎え、過ぎし九十年間の歴史の中で常に神が私たちと共に歩み、導き、喜びと痛みを分かちあい、癒しをなして下さったことを覚えて感謝いたします。

私たちは在日大韓基督敎會は九十年の歩みを省みる中で、百周年に向かう私たちの宣敎的使命を確認し、次のよう

宣敎90周年記念大会

大会宣言文

- 1、私たちは一九〇八年より今日に至る歴史の中で、苦痛と困難に屈せず、敎會を形成して来た先輩敎職者・信徒たちの信仰を継承することを決
- 2、私たちは百自立敎會の達成と在日同胞及び日本社会への福音宣敎に努め、敎會の革新と新しい礼拝の在り方に向けて取り組むことを決意します。
- 3、私たちは敎會構成員の多様化を神の祝福として感謝し、豊かな信仰共同体の形成に向けて取り組むことを決意します。
- 4、私たちは宣敎百周年に向けて、その宣敎的使命の重要性を認識し、その担い手、特に、青年・女性の指導者の養成に努
- 5、私たちは自然と人間とすべての生命体が互いに共生すべきであり、神から与えられた使命であると信じこの課題に取り組むことを決意します。
- 6、私たちは自然と人間とすべての生命体が互いに共生すべきであり、神から与えられた使命であると信じこの課題に取り組むことを決意します。
- 7、私たちは祖国分断の痛みを分かち合い、平和統一を推進するとともに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
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
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
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
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
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
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
가거 하리라. (신명기 30:19, 20)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
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
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
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
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
시니라. (마가복음 1:14, 15)

새로운 천년을 향한 문
명사적 전환의 길로써 조
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의 실
현을 염원하는 남과 북(북
과 남), 그리고 해외동포
기독교인들(개교단이 주
최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주관으로 1998년
10월 8일~10일까지 오호
사카 교회에서 제6차 조
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
한 기독교 회의가 개최되
었다. 1984년 도산소회의를
시작으로 글리온과 동경에
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
독자회의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개최된 이번 회
의는 21세기 문명사
적 전환과 우리 민족공동
체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
지고 지구적 민족적 차원
에서 변화된 통일환경을 심
도 깊게 분석하고, 이때가
평화통일과 선교를 통한 민
족생명공동체의 회복을 가
져줄 하나님의 때라는 확
신을 가졌다. 성찬을 함께

第6回 祖国の統一과 宣教에 관한 基督者 (大阪) 會議 決議文

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과 북(북과 남), 그리
고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의 협
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더욱 다짐하였다.

제6차 오호사카회의의
七·四남북공동성명서를
통해 천명한 자주, 평화통
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
일3대원칙과 남북합의서
를 통해 결의한 남북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조항들을 재확인하였
을 뿐만 아니라, 1990
년부터 6차에 걸쳐 이어
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
교에 관한 기독교회의의 결
의와 정신을 계승하기로 하
였다. 기독교의 통일운동
은 이념이나 사상, 제도,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성서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회헌운동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은 어느 한
체제에 의한 일방적인 흡
수나 정복에 의해서가 아
니라 상호공존과 공영, 즉
상생을 성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외형제
자매 교회들의 신앙적 연
대와 적극적인 협력이 불
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하
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
세계를 단일 시장화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직면하
여, 남과 북(북과 남)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족생
명공동체로 이해하고, 상
호신뢰에 근거한 협력과 교
류를 통해 나눔과 섬김의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헌
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탈냉전시대의 유
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의 평화통일과 선교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해 우리 민
족이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의 과제
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
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분단구조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의 위
기로 인해 고착될 위기
에 처해있기에, 한반도 평
화통일운동은 모든 피조물
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
상을 위해 불가결한 것임
을 천명한다.

2, 우리는 모든 피조물
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생명공동체의 건설을 위
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
결, 애국애족의 정신에 기
초한 민족 평화통일을 성
취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을 가로막는 외세를 비롯
한 각종 장애와 난관을 극
복하기 위해 평화와 통일
을 바라는 남과 북 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기독
교인들 모두가 민족의 대
단결을 추구할 것을 결의
한다.

3, 우리는 남과 북(북
과 남), 그리고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의 평화통일운
동의 자주성과 서로 다
른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
과 인정에 기초한 상호평
등한 교류협력의 필요를 하
기 위하여 한반도 내에서 평
화통일을 위한 기독교자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우리는 화해와 일치
를 귀중히 여기는 그리스
도인들로서 민족적 단합과
조국평화통일을 실현해나
기 위해 남과 북(북과 남)
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1998년 10월 10일

九月二十二、二十三、
京都南部教会において青年
会全国協議会の第三十六回
定期総会が開かれた。

第一日目は開会礼拝の
後、代表及び各地方会、各
部より総括が行われた。こ
の中で金一恵九七年度代表
委員は一年間の各行事を振
り返りつつ、それぞれ提起
された問題とそれに対して
の姿勢を強調。「新しい希
望を産み出す在日大韓基督
教会青年、在日大韓基督
教会青年」という標語のも
と、今年度は宣教九十周年と
いうこともあって、例年に
ない総会の動きの中に
あって、全協としての役
割、自覚を深く総括した。

また、各行事にあつてさま
ざまな立場に立つ人々との
共存と理解を総会全体に啓
発を促す努力も必要である
ことも続けて強調した。

中央委員会が四回行われ
たが、今年度は総会青年局
との話し合いのため、関西
分科会も六回もたれ全協を
取り巻く多くの問題提起に
対し、真摯に受け止めてき
た経緯などについても報告
された。

二日目は献議案が協議さ
れ、①総会社会局の性差別
問題小委員会に研究部から
一名おくる②大阪玉造の関
西韓国YMCAの一室を全
協、関西連の事務所として
の利用を申請することを決
議した。

続いて九七年度中央委員
会が解散し、九八年度中央
委員を選出した。今回は立
候補者が多数となり、すべ
ての委員が選挙で選ばれ
た。十五人の新中央委員の
協議において新代表委員に
崔炯仁氏(京都教会)が選
ばれた。

新しく選出された新度中
央委員は次の通り。

- 代表委員 崔炯仁(京都)
- 総務 崔林泰(福岡中央)
- 書記 金直浩(川崎)
- 副書記 西部連会長
- 研究部長 金一恵(京都南部)
- 研究部 曹理沙(京都)
- 研究部 宣虎長(福岡中央)
- 伝道部長 朴重紀(大阪西成)
- 伝道部 朴大信(調布)
- 伝道部 関東連会長
- 出版部長 姜公成(名古屋)
- 出版部 金智一(大阪)
- 出版部 関西連会長
- 財政部長 梁彩(大阪)
- 財政部 西南連会長
- 会計監査 韓守賢(京都南部)

全協代表委員に 崔炯仁氏を選出

第36回青年全国協議会開催

この度、在日大韓基督教関西地方会京
都納骨堂移転にあたり、去る五月五日遺
族総会に於いて決定しましたとおり、京
都納骨堂移転を進めて参りましたが、ま
もなく完成の運びとなり移転することに
なりました。遺骨は遺家族の皆様の手で
お運び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ので、万
障お繰り合わせのうえ、是非ご出席下さ
いますようお願い致します。

尚、新納骨堂建築費、旧納骨堂撤去費
の一部を補充するため、献金をお願いす
ることになり、次のことを公告いたしま
す。

納骨堂移転案内
日 時 一九九八年十一月三(火)
午後三時
集合場所 西方寺納骨堂(今までの場
所)
移転場所 京都市右京区西院北矢掛町
十九(京都教会内)
移転費用 一柱につき、一口三万円
一九九八年十月五日
京都納骨堂管理者 朴寿吉
在日大韓基督教 京都教会
在日大韓基督教 京都南部教会

大 阪 市 生 野 区 小 路 東 二 丁 目 八 番 四 号
在 日 大 韓 基 督 教 会 布 施 教 会
当 教 会 信 徒 及 び 利 害 関 係 者 各 位
救 い 主 イ エ ス ・ キ リ ス ト の 福 音 宣 教 の
使 命 を 果 た す べ く、当 教 会 規 則 第 二 四 条
一 号 に 準 じ て 公 示 いた します。これ
に つ き 異 議 の あ る 方 は 一 九 九 八 年 十 二 月
三 十 一 日 ま で 申 し 出 て 下 さ い。期 間 内 に
申 し 出 の 無 き 場 合 は 実 行 致 し ます。

一、教会堂建築の為土地処分件
土地表示
大 阪 市 生 野 区 小 路 東 二 丁 目 八 番 四 号

장터

韓国食品・書籍・CD・ビデオ

(株)韓国広場

新宿店：東京都新宿区大久保1-17-7
TEL (03) 3232-5400
FAX (03) 3200-2949

代表取締役 金根熙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海外出張の際に
国際携帯電話を
レンタルいたします。

(株)ジーピーエス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ジャパン

〒104-0031 東京都中央区京橋3丁目12番7号
京橋山本ビル
電話 03(3564)1241(代)
FAX 03(3564)1219

特販営業部長 朴仲弘